

# 제주에 전국 첫 공립 치매전담요양원

서귀포공립요양원 문 열어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로 건보공단이 시설 운영 맡아 일반인 포함 48명 수용 규모 오늘부터 입소 신청도 접수



24일 서귀포시 남원읍 서귀포공립요양원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양윤경 서귀포시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시설 개원을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치매국가책임제 완성을 위한 첫 걸음인 서귀포공립요양원이 문을 열었다.

서귀포시는 24일 오전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서귀포공립요양원에서 개원식을 개최했다. 개원식에는 양윤경 서귀포시장·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조경숙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운영과장·지역 도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계획 발표, 요양원 라운딩, 기념식수 및 테이프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서귀포공립요양원은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해 서귀포시가 설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최초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다. 치매국가책임제로 나아 가기 위한 기초 인프라 중 하나이다.

서귀포공립요양원은 부지 6699㎡·건물 1741㎡(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치매전담실(24명)·일반요양실(24명)로 나눠 모두 48명을 수용할 수 있다.

치매전담실은 장기요양 2-5등급을 받은 어르신 중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으면 입소 가능하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요양보호사와 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돼 현실인식훈련·운동요법·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인지자극활동 같은 집단프로그램 등 치매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서귀포공립요양원의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행기관으로 선정·발표했다.

서귀포공립요양원은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소신청을 접수한다. 문의는 서귀포공립요양원(010-6833-7166)로 하면 된다.

제주지역 치매 유병률은 12.56%로, 전국 평균(10.28%)을 훨씬 웃돈다. 이같은 유병률을 바탕으로 서귀포지역 치매 노인은 379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영총기자

# 일상생활 속 드론 띄우는 제주도 신교통서비스 준비에 힘 보탠다

도, 도심항공교통협의체 참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에서 총괄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에 참여해 국내 도심항공교통 생태계 구축에 동참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는 정부가 지난 4일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40여개의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공동체다. 최승현 행정부지사(왼쪽)를 비롯한 제주

도대표단은 이날 서울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열린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 발족식에 참석해 다각적 협력사업 추진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는 도시에서 신교통서비스 준비를, 대학교는 중장기 전문인력 기반 확보를, 유관 공공기관은 항공·통신·자력·건설·전력·도시·공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이들은 범정부적 정책·제도 마련의 첫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동으로 특별법까지 제정한다는 계

획이다. 특히 제주도는 드론 실증도시와 스마트시티 헬렌지 사업 등을 추진해 다양한 실증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수도권의 도심 운용 전 실증 장소 및 상용화 모델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오는 11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앞서 해양 및 한라산 일대 등으로 한정돼 있는 규제 샌드박스 구역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서비스를 계획 중이다. 아울러 드론을 활용해 도심 내 범죄 예방, 해양환경 모니터링, 한라산 긴급구호물품 배송서비스, 가스배관망 모니터링, 월동작물 재배지역 및 재선충의심지역 자동 탐지, 도서간간지역의 비대면 물류 배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묵기자 haru@ihalla.com



비 오는 날, 동문시장 장맛비가 내린 24일 제주시 동문시장이 비를 피해 찾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상국기자

# "별장용 건물 확인되면 취득세 중과세"

도외법인 부동산 105곳 대상 제주시, 9월까지 실태조사

제주시가 도외 법인이 주거용 건축물을 별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제주시는 탈루나 누락세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외 법인이 시에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별장 사용 여부를 9월까지 집중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6-2019년 도외

법인이 취득해 보유중인 부동산 중 휴양지에 인접한 콘도,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등 105곳이다.

시는 우선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공부조사를 통해 별장으로 의심되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해당 법인에 자진신고를 안내한다. 이어 2차로 현장 방문 조사와 해당 법인의 소명을 통해 최종적으로 별장으로 확인되면 별장 취득세 중과세 부과를 예고 하고 불응 후 부과할 예정이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법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별장중과세 취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한다. 기간이 경과하면 4배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추가 부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별장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시 세율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문미숙기자

한라도서관에 '인권서당'도, 시범사업 거쳐 확대

제주도내 도서관에 '인권서당'이 개설,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권의식 확산

을 위해 한라도서관과 협력해 25일부터 '인권서당'을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서당'은 인권도서·자료를 비치하고 인권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권 전용 공간이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라도서관 일반자료실에 장애인, 노동, 여성

등 분야별 인권도서 280여 권을 비치했다.

도는 올해 한라도서관 내 '인권서당'을 시작으로 향후 도내 모든 도서관 및 학교도서관까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음식물쓰레기 배출, 더 편리하게"

서귀포시, 사용 카드 확대

RFID 계량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확대된다.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편의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지역 내 음식물 RFID 계량장비 사용 카드를 캐시비 교통카드까지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서귀포지역 RFID 계량장비는 티머니 교통카드뿐만 아니라 캐시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확대·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6월 중으로 교체 설치가 진행중인 노후 RFID 계량장비 400대를, 7월말까지는 동

지역 636대·읍면지역 634대에 대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RFID란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라벨·카드 등의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이다. 현재 서귀포지역 읍·면·동에는 모두 1670대의 RFID 계량장비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서귀포지역에서는 지난 2018년 2만5795t, 2019년에는 2만7629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RFID 계량장비를 통해 배출된 것은 지난해 1-5월 3633t, 올해 1-5월 4197t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모바일을 이용해 배출하는 방법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영총기자 yihyeon@ihalla.com

성산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본부는 성산읍 지역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성산읍 지역은 서귀포시 동부지역 생활권이지만 여러 마을이 산재돼 그동안 우·오수 분류식 관거, 배수설비 정비 등이 유보돼 왔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 수립한 '제주도 광역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성산읍 지역의 하수처리구역에 대해 확대 지정하고, 같은 해 9월 총 사업비 317억원 규모로 하수관로 30.2km, 오수 펌프장 13개소, 배수설비 511가구에 대한 정비를 위해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 올 상반기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도는 7월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해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 칼슘비료+코코리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잡초의 경감**

**높은 저장성**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N20 60일 공급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망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용량 : 20kg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영양분 흡수를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옥사바실러스**  
미생물 실험체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NAVER D2M** 코코리 검색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 감귤·만감류 영농안내

▣ **당을 올리려면**

- 2차 낙과후 해피한그린 25말+글루칼(포도당 칼슘)50말→일주일 간격 2회엽면시비(농약 혼용가능)
- 색이 변할때(노지감귤인 경우 10월초)해피한 그린 25말+글루칼 25말 일주일 간격 2~3회 엽면시비

▣ **양양막(감귤속 내피)을 부드럽게 하려면**

- 1차, 2차 낙과후 하이휴믹(천연가리)2번 관주 (3300㎡ 당 2번 관주시 4만원 소요)

▣ **부피과 방지 하려면(만감류인 경우)**

- 9월부터 송풍기 가동해 아침 이슬이 맺지 않도록 할것
- 7월부터 한라봉인 경우 15일에 한번 글루칼 50~100말 엽면시비 다른 만감류는 30일에 한번 엽면시비

▣ **산이 높고 당이 떨어졌을때(하우스 감귤포함 수확 20일전)**

- 50말에 해피한 그린 3병+글루칼 2포 3~4일간격 3회 엽면시비

**(주)포트라 제주지사**  
**곰팡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